

海外建設促進法(案)을 보고

龍 墓 煥

國力의伸張과 더불어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建築藝術은 当局의 海外建設促進法案을 成案 국회에 上程 하므로서 建築士들의宿願인 海外市場進出이 法的 利益 받침을 받게되어 世界市場에 깊숙히 뿌리를 심게 됐다.

建築藝術人으로써 国家再建에 一翼을 担当하고 있는 建築士들은 政府가 建築士法規程에 의한 建築士事務所登録을 畢한 者에 대해 海外建設免許를 明年부터 建築士에게 發給토록 함에 따라 建築藝術人은 海外市場에 進出元都給, 下都給, 国内外「조인트벤처」등 이밖에 名称如何에 不拘하고 海外建設用役의 都給을 위한 営業을 할 수 있게 事業規模가 拡大되었는데 具體案은 同法施行令으로 公布하게 된다.

그러나 政府는 建設部長官이 同一한 海外建設 用役을 2人以上의 建築人들이 相互間의 都給을 위한 受注競合이 있을경우에는 必要한 命令調整 勸告등을 할 수 있도록 規定化하고 있어 이에 따른 制裁對象이 되지 않도록 格別히 留意해야 된다.

政府當局은 海外進出에 따른 支援体制의 確立과 建設輸出을 위한 措置로 一般商品 輸出보다 越等의 稅制上의 恵拏을 制度의으로 賦与하고 있으며 新市場 開拓者에 대하여는 予算範圍内에서 補助金을 支援토록 하고 法人税와 所得稅 등의 租稅減免을 피할 方針 밑에 租稅減免規制法을 改正하여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必要 経費 또는 損失算入範圍를 投資金融의 10%에서 15~20%로 拡大하고 据置 및 還入期間을 1년간씩 延長하므로써 現行 2년 据置 3년 債還을 3년 据置 4년 債還토록 恵拏을 賦与할 方針인데 이 경우 52%相当의 減免效果를 間接的으로 얻게 된다.

더우기 새해를 起点으로 海外市場에 進出하게 될 建築藝術은 初創期라는 点을 甚察할 때 많은 問題 point이 露出될 것으로予想되나 海外建設 市場開拓의 경우 越南戰을 契機로 東南亞(월남, 泰国,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네팔등) 한구석에서 헛불을 밝히기始作 1차년도인 66

년도에는 1천만달러의 海外工事受注의 契約実績을 올린 바 있으나 10년 후인 75년 現年度에 들어서서는 中東, 東南亞, 大平洋, 阿洲, 南美, 濠洲등 世界 25個地域에 進出을目標 5억달러 受注目標를 월션 上廻 8억달러 규모의 契約高를 나타냄으로써 成長韓國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民間經協을 통한 外交의 一翼을 担当하고 있으며 政府는 初 5억달러 受注目標規模를 10億달러 契約推進으로 變更하는 등의 措置로 建設業界는 활발한 움직임속에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는 実情이다.

그러나 海外建設輸出도 한때는 世界的 經濟不況을 일으킨 「오일쇼크」의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產油국의 급격한 經濟開發策에 따라 새로운 海外市場開拓을 위한 본궤도 進入이란 일대 転換point를 이룩 5大洋 6大陸에 메아리치게 되었으며 政府는 미온적 政策을 바꾸어 積極的 支援策으로 施策을 둘려 海外建設進出은 活発히 展開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산 証拏들은 76년을 起点으로 하여 海外에 進出하게 될 建築藝術人들에 대하여는 많은 教訓으로서의 存在 價置를 넣게될 것이며 進出上 過여야될 많은 애로점打開에 効果를 가져 오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政府는 海外輸出增大策의 一環으로 個別의 으로 事前承認을 받던 外貨使用制限을 緩和하고 「세일즈맨」단과 中小企業海外共同事務所 設置등에 所要될 特殊活動費는 事前計酬에 의한 必要한 経費全額을 支援하고 外貨회득을 위한 海外進出者로서 複數旅券을 所持한 者에게는 一定한 범위안에서 外貨使用을 自由化하고 事後報告토록 措置하고 地域別 旅行日数 制限을 철폐 30일 以内에서는 自由로 하 旅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日當 채재비를 90달러 水準으로大幅引上하는한편其他旅行에 따른 附帶經費使用制限도 크게 緩和할 方針이며 輸出業체의 海外支社가 使用하는 外貨에 대해서도 制限을 緩和營業基金 限度를 引上하고 各種 경비사용限度를 增額하는등 海外進出促進策을 強力히 밀고 나가기로 하고 있다.

海外進出에 있어 특이 할만한 것은 지금까지 中東產油国과의 대화가 斷絕된 것은 아니었으나 대화의 「체늘」이 IBRD(世界銀行) ADB(亞細亞開發銀行) 혹은 欧美主要金融市場의 「뱅커」를 매개로 한 間接對話였으나 이번 韓·이란 閣僚會談은 当事國間의 權限과 責任아래 이루어진 直接對話를 통해 向後 5년간 兩국交易量을 20억 달러까지 拡大키로 하고 이란이 推進중인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遂行에 必要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建設 및 유지사업에 韓國의 企業体가 參與할 수 있도록 兩국政府는 積極支援할 것에 合議하고 이란의 住宅建設事業과 관련 韓國은 向後 5년간 10만戸의 住宅 15억 달러 상당을 建設하고 이에 따른 이란의 輸出 所要人力과 機資材 등을 供給키 위해 具體的 事業計劃을 樹立키로 合議하고 지난 11월27일 梁鐸植住公社長을 囘長으로 11명의 調查團이 터제란 으로 파견되어 庶民住宅建設을 위한 立地選定 및 設計 그리고 住宅型別 규모등 細部計劃을 調査중에 있어 建築 藝術人들의 大舉進出이 不可避할 実情에 놓여있다.

오일쇼크 以来 中東產油국의 豐富한 오일달러는 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킨 가운데 많은 橫財를 했고 國際 經濟社會에서 充分한 信用을 얻지못한 開發途上國인 우리 나라는 先進列強과의 각축에서 항상 뒤로 물려서 곤 했으나 이제 우리 나라도 韓·이란 閣僚會談을 契機로 中東產油국들과 1对1로 交涉을 벌일만큼 國際의인 地位와 信用이 向上되므로서 앞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主要 產油국과도 直接交涉을 통해 中東寶庫에 本格的進出의 展望이 밝아졌다.

世界的인 景氣深大로 因해 各國은 保護政策의 實施 결과 우리 나라의 商品은 계속 不振을 免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多幸히 建設輸出이 期待以上の 拡大로 年間 1천 달러가 넘는 오일 머니를 吸收하고 있는 中東產油국을 主軸으로 한 建設輸出에 힘입어 建設用役의 潜在 可能性은 앞으로 계속 밝다는 結論을 내리게 된 것은 그동안 国內開發計劃을 遂行해온 가운데 쌓아올린 蕴積된 산 知識과 經驗이 奏效한 結果라고도 볼 수 있지만 其實은 各種部分에 걸쳐 海外進出을 主導하는 協力과 進出者들의 努力의 結實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建設輸出은 外貨獲得뿐 아니라 重要한 것은 国威宣揚이란 广泛위한 效果라는 事實임을 볼 때 建設用役輸出에 대한 評價는 再次 다시 定立되어야 할 것 같다.

政府는 建設輸出을 商品輸出에 끗지 않게 외화회득源으로서 重要한 一翼을 擔當토록 各種 部分에 걸쳐 支援策을 強化함에 따라 一般商品보다 建設輸出의 경우 더 큰 金融金利를 最長 135일까지 国家源資材를 使用할 때는

12% 差等으로 適用하고 있는 한편 外貨表示建設은 契約과 同時 金融支援을 달려당 420원으로 하고 이에 輸出金融金利를 180일(6개월)까지는 9%, 360일까지는 12%로 適用하는 등 輸出金融의 融資期間을 크게 늘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릴 計劃인 것으로 伝해지고 있다.

그러나 建設輸出은 一般商品輸出과는 달리 現地人員의 採用條件에 따른 人件費 事務室賃貸料등 現地經費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經稼得率을 計上해보면 一般商品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政府當局은 보다 現地 計略 코스트를 最大한 줄여 준 輸出所得을 增加시키는 刺戟策을 動員해 줄 것을 提案하고 싶다.

끝으로 建築藝術人은 海外市場進出에 있어 藝術人으로서 公正な 立場을 살려 受注競爭을 위한 優先 행위는 止揚, 国威宣揚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個人資格으로 進出하는 것보다는 合同事務所 構成體로서 公信力과 資力を 總動員한 与件으로 政府가 計劃한 80년대의 100億달러 輸出의 役軍으로써 先峯者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다.

各國의 建築藝術은 文化社會人으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으나 不幸히도 우리 나라의 建築藝術人은 作品 위주에 몰락한 印象을 받고 있는 現實인바 海外進出과 先進國들의 建築像을 배우고 익혀 탁월한 실력을 最大한 發揮, 百年大戒의 國家發展에 공헌하는 한편 韓國建築藝術을 全世界에 普及시켜 後孫들이 조상의 「業」을 尊敬도록 時代의 転換點이 来途한 것을 깊이 銘心하기 바란다.

에너지 소비절약표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동꺼서 애국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걷기운동, 절약되고 건강준다.